

2017년 11월 14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Dynamic Korea: 온기의 확산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다나와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크린앤사이언스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음식료, 반도체, 은행, 건설, 인터파크홀딩스, 한섬, 한화생명, NHN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투자 전략 | 박소연
시황 분석 | 김대준
계량 분석 | 안혁
스몰캡 전략 | 정훈석
해외주식 | 백찬규
중국시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제 분석 | 박정우
채권 분석 | 오창섭
크레딧 | 김기명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545.44	2,552.40	2,550.57	2,542.95	2,530.35	
	등락폭	-3.97	6.96	-1.83	-7.62	-12.6	
	등락종목	상승(상한)	394(0)	409(1)	474(2)	409(2)	375(2)
		하락(하한)	392(0)	374(0)	322(0)	385(0)	424(0)
	ADR	106.91	104.29	104.68	108.32	107.88	
	이격도	10 일	100.81	100.84	100.49	100.01	99.40
		20 일	101.72	101.81	101.58	101.14	100.54
	투자심리	60	6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254	277	294	292	265
	거래대금	(십억 원)	5,666	5,717	6,932	5,518	6,019
코스닥	코스닥지수	701.14	709.11	709.94	720.79	741.38	
	등락폭	-2.65	7.97	0.83	10.85	20.59	
	등락종목	상승(상한)	576(2)	578(2)	649(2)	701(0)	731(1)
		하락(하한)	552(0)	567(0)	477(0)	441(0)	410(0)
	ADR	107.44	102.68	104.48	113.03	121.03	
	이격도	10 일	101.02	101.88	101.57	102.67	104.83
		20 일	102.85	103.67	103.46	104.60	106.95
	투자심리	60	60	70	70	80	
	거래량	(백만 주)	650	812	615	600	678
	거래대금	(십억 원)	5,474	5,787	4,447	4,452	5,74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135.1	1,551.2	1,249.8	435.3	76.9	145.4	72.0	13.0	507.1	90.0
	매도	2,877.5	1,615.6	1,476.9	263.1	120.5	232.4	233.0	33.4	594.5	56.1
	순매수	257.6	-64.4	-227.1	172.3	-43.6	-87.0	-160.9	-20.4	-87.4	33.9
	11 월 누계	534.2	278.1	-942.2	969.0	-270.8	-148.8	-220.9	-106.9	-1,163.8	130.0
	17 년 누계	-4,857.8	8,323.3	-7,601.9	7,030.3	-2,098.4	-3,806.4	-345.9	-847.2	-7,534.5	4,136.5
	코스닥	매수	4,682.3	500.7	552.0	150.5	46.8	100.2	87.4	10.9	156.3
매도		5,088.5	385.6	253.3	71.1	9.4	38.7	28.7	2.1	103.2	43.9
순매수		-406.2	115.1	298.8	79.4	37.3	61.5	58.7	8.8	53.1	-7.6
11 월 누계		-123.9	-235.8	490.2	283.7	57.7	78.6	44.9	20.2	5.1	-130.4
17 년 누계		3,083.6	1,979.7	-3,598.8	-556.5	-334.7	-911.4	-576.9	-81.4	-1,138.1	-1,464.5

Dynamic Korea: 온기의 확산

2018년 Target KOSPI	2,900pt
12MF PER	9.88배
12MF PBR	1.12배
Yield Gap	7.9%P

- ▶ 그레이트 로테이션: 쏠림의 완화, 온기의 확산
- ▶ 2018 KOSPI 타겟 2,900pt: 성장에서 가치로
- ▶ Top Picks: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NAVER, 삼성엔지니어링, 하나투어

■ 그레이트 로테이션: 쏠림의 완화, 온기의 확산

KOSPI가 2,600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뚫었지만 IT와 바이오를 제외하면 소외감이 극심했다. 경기는 바닥을 쳤으나 북핵과 THAAD, 기업규제 강화로 수요 회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은 달라질 것이다. 경기회복과 인플레 기대가 강화되며 시중금리가 상승, 업종과 스타일 배분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주에 편중되었던 주식시장의 무게 중심이 경기소비재와 산업재 등 경기 민감형 가치주로 이동할 것이다.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할인율 변화, 중국 A주 MSCI 편입 등이 변수이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조정은 매수 기회다.

■ 2018년 투자 테마: 지배구조와 3020 신재생 에너지 정책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화두다. 경제민주화 기조로 재벌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확대 움직임이 많다. 이는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확대 및 주주환원 요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업종은 유망하다.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과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가 그 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ESS 관련 업체들과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 2018년 KOSPI 타겟 2,900pt: 성장에서 가치로

2018년 KOSPI 예상 밴드는 2,350~2,900p다. 하단은 12MF PBR 1배 레벨이며 상단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7%, 자기자본비용(COE) 8.5% (Rf=2.5%, Rp=6%)를 가정해 목표 PBR 1.26배인 2,900p로 산출했다. 순이익 증가율은 10.9%로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나 기업이익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고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의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스타일로 보면 2017년의 경우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우수했는데 2018년은 경기 모멘텀 확산, 인플레 기대 개선 등으로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것이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이슈도 패시브(passive) 투자보다는 액티브(Active) 투자에 유리한 변수다.

■ Top Picks: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NAVER, 삼성엔지니어링 하나투어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기대된다. 메모리 업황은 소폭 둔화되나 3D 낸드 원가 절감 및 디스플레이 부문 영업이익 개선이 전사 증익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 개선, 핵심부품 성장세 지속, 고수익에 성장성까지 더한 A/S 부문으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배당수익 증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계약 가치 증가가 매력적이다. NAVER는 기존 사업과 신규 AI 사업간의 시너지가 가시화되고 LINE이 제 2의 성장기에 진입하며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PTT, 타이오 일, 사빅 등의 발주 재개로 수주잔고 대비 시가총액 비율의 큰 폭 개선이 기대된다. 하나투어는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출국자수 증가 수혜가 투자 포인트다. 면세점 부문 적자폭 축소 및 하나투어재팬 등 연결 자회사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표 1> 2018년 투자유망기업 실적 전망

(단위: 원, %, 배)

종목	현재주가		밸류에이션				투자포인트	
	목표주가	상승여력	연도	PER	PBR	EPS		ROE
SK이노베이션 (096770)	214,000		2017F	7.9	1.16	26,949	14.6	정유 수급이 타이트해져 내년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 확대
	260,000		2018F	6.4	1.02	33,612	17.1	지속 가능한 ROE 개선을 감안할 때 주당 적정가치는 372,153원 혹은 그 이상 상승 가능
	21.5%		2019F	5.4	0.90	39,852	17.9	매력적인 배당도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 현재가 기준 내년 배당수익률은 6%에 근접
롯데정밀화학 (004000)	45,350		2017F	10.9	0.96	4177	9.2	염소사업부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로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54% 증가할 것
	56,000		2018F	8.3	0.87	5441	10.9	ECH 스프레드는 이미 BEP 수준에 도달. 향후 수년간의 상승 국면 진입
	23.5%		2019F	6.7	0.77	6786	12.1	향후 몇 년간 제한적인 증설로 가성소다 공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
풍산 (103140)	49,200		2017F	7.9	1.00	6,211	13.3	펀더멘털 개선과 증장기 동 가격 상승
	70,000		2018F	6.0	0.88	8,243	15.6	글로벌 동 수급은 공급 부족이 심화될 전망
	42.3%		2019F	5.4	0.77	9,039	15.0	드러나지 않은 전기차 수혜주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3,350		2017F	87.4	2.51	153	2.9	PTT, 타이오일, 사빅 등 수행경험이 많은 발주처의 발주 재개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17,000		2018F	17.8	2.20	752	13.2	총 27조원의 입찰 안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MENA지역 72%, 아시아 24%, 미주 4%
	27.3%		2019F	10.7	1.83	1,244	18.6	시총은 수주잔고 0.4배에서 형성, 2018F 수주잔고 9.7조원 적용 시 적정주가 17,000원
삼성중공업 (010140)	12,850		2017F	37.8	0.78	340	2.0	유동성이 본격 개선되는 시기로 펀더멘털 회복의 델타가 큼
	15,000		2018F	61.8	0.77	208	1.2	해양시장의 top player로 업스트림 시장 회복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
	16.7%		2019F	14.3	0.74	896	4.9	시총은 수주잔고 0.4배에서 형성, 2018F 수주잔고 15조원 적용 시 적정주가 15,000원
현대로보틱스 (267250)	434,000		2017F	3.5	0.73	120,323	20.9	정제마진 개선과 유가 상승으로 현대오일뱅크의 기업가치 재조명 예상
	628,000		2018F	5.4	0.74	77,791	13.7	내년 현대OCI 본격 가동 및 하반기 고도화 설비 추가로 인해 수익성 추가 개선될 전망
	44.7%		2019F	4.3	0.65	96,976	15.0	현대중공업의 captive 시장 활용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적 상향
두산인프라코어 (042670)	9,720		2017F	9.4	1.12	1,031	11.1	건설기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엔진 사업부 이익 증가
	13,500		2018F	8.2	0.98	1,189	12.8	미국/유럽지역 판매량 증가 수혜 기대. 딜러들의 재고 축적 노력은 매출에 긍정적인 요소
	38.9%		2019F	6.9	0.86	1,403	13.2	프로모션의 비용 규모 감소로 두산발켓의 이익은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날 전망
제주항공 (089590)	34,100		2017F	11.3	2.68	3,008	26.0	우리나라 1위 저비용항공사(LCC)로 항공여객시장 성장을 주도, M/S 상승 속도 가장 빠름
	46,000		2018F	9.9	2.19	3,449	24.3	공급은 2017년 23%, 2018F 18년 늘어나 규모의 경제에 따른 단위비용 절감 이어질 것
	34.9%		2019F	8.8	1.81	3,878	22.5	구조적 이익증가 나타나는 LCC에 대한 시장관심 확대로 2018년 리레이팅 재개될 전망
현대모비스 (012330)	266,000		2017F	10.3	0.84	25,875	8.3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량이 2018년부터 회복되며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
	340,000		2018F	7.6	0.77	34,883	10.3	현기차 친환경차 출시 및 판매증가 이어지며 친환경차 부품공장의 가동률 상승할 전망
	27.8%		2019F	6.5	0.70	40,929	11.1	물류투자자 높은 수익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A/S부문은 향후 매출 성장까지 기대
화승엔터프라이즈 (241590)	18,800		2017F	12.1	1.96	1,557	17.4	글로벌 스포츠 운동화 시장 성장과 고객사인 아디다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목
	23,000		2018F	9.4	1.61	2,005	18.8	동남아 생산 거점과 생산 경쟁력에 힘입어 고객사 내 점유율 상승
	22.3%		2019F	8.0	1.33	2,342	18.1	주요 글로벌 의류, 신발 OEM사 중 가장 높은 성장 전망
하나투어 (039130)	102,500		2017F	69.7	5.32	1,471	8.6	인천공항 T2 오픈에 따른 출국자수 증가 수혜
	114,000		2018F	23.6	4.68	4,347	23.5	면세점 부문 적자폭 축소로 연결 실적 호전이 기여
	11.2%		2019F	19.0	4.01	5,406	24.7	하나투어재팬 등 연결 자회사 성과 확대 전망
CJ E&M (130960)	88,700		2017F	7.0	1.71	12,740	27.7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해외 매출 성장 가속화
	108,000		2018F	21.5	1.59	4,128	7.7	디지털 광고 등 고마진 사업 확대로 수익성 향상 전망
	21.8%		2019F	18.5	1.48	4,791	8.3	사업 부문간 시너지 확대,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롯데하이마트 (071840)	70,600		2017F	10.4	0.81	6,783	8.1	2018년은 본격적인 실적 상승이 나타나는 시기
	95,000		2018F	8.1	0.74	8,664	9.5	신규 가전이 이끄는 구조적 성장
	34.6%		2019F	7.3	0.68	9,733	9.8	실적 개선,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CJ제일제당 (097950)	370,500		2017F	12.1	1.41	30,669	12.2	HMR류 고성장으로 가공식품의 연결 영업이익 내 비중 50%까지 상승
	450,000		2018F	13.5	1.29	27,361	9.9	소세 식품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 바이오는 발린, 트립토판 선전 지속
	21.5%		2019F	9.9	1.16	37,443	12.3	CJ헬스케어 매각은 순차입금을 감소시켜 안전성과 재무 건전성 강화될 것
LG생활건강 (051900)	1,206,000		2017F	30.1	6.70	40,105	23.6	2018년 대중국 관계 개선과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로 국내 면세점 화장품 회복
	1,280,000		2018F	25.7	5.55	46,897	22.7	브랜드 다각화와 공격적인 출점으로 중국 현지 프리미엄 화장품 고성장 전망
	6.1%		2019F	23.1	4.66	52,276	21.0	화장품, 음료, 생활용품으로 다각화되어 사업 포트폴리오와 비용 안정적 구조
녹십자 (006280)	215,500		2017F	36.6	2.30	5,895	6.6	높은 진입장벽+안정적 현금흐름=Valuation Premium
	260,000		2018F	27.4	2.31	7,878	8.5	국내 Plasma와 백신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확보
	20.6%		2019F	25.2	2.29	8,535	9.2	Plasma 증설효과 발생

〈표 1〉 2018년 투자유망기업 실적 전망

(단위: 원, %, 배)

종목	현재주가		밸류에이션				투자포인트
	목표주가	상승여력	연도	PER	PBR	EPS	
KB금융 (105560)	57,900	2017F	6.6	0.67	8,768	11.3	KB손해보험, KB증권, KB캐피탈 확대로 가장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73,000	2018F	6.9	0.63	8,438	9.8	우수한 영업력과 리스크 관리로 은행의 NIM 상승과 대손을 안정화 기대
	26.1%	2019F	6.4	0.58	9,079	9.8	우수한 자본 비율 바탕으로 주주친화책 지속, 2016년 배당성향 23.2%, 추가 상향 기대
삼성생명 (032830)	134,000	2017F	18.5	0.84	7,261	4.8	시중금리 상승으로 보유계약가치, 영업가치 멀티플 상향 전망
	163,000	2018F	16.7	0.79	8,026	4.9	삼성전자 배당수익 증가로 삼성생명의 이익 증가 전망
	21.6%	2019F	15.2	0.73	8,835	5.0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배당주 매력 부각, 자사주 소각 가능성
NAVER (035420)	860,000	2017F	31.8	4.98	27,063	19.8	플랫폼 내 쇼핑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액의 성장
	1,050,000	2018F	26.6	4.30	32,383	19.9	기존 사업과 신규 AI 사업간의 시너지로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전망
	22.1%	2019F	23.5	3.72	36,572	18.7	LINE의 제2성장기 진입. 기존 광고 대비 단가화 효율이 높은 동영상 광고 비중 상승
LG디스플레이 (034220)	29,550	2017F	5.4	0.72	5,461	14.1	OLED TV 패널 사업 규모의 경제 확보 및 수익성 개선으로 2018년 2분기 흑전 예상
	58,000	2018F	10.5	0.67	2,824	6.6	TV패널 대형화 추세로 판매 회복, 2018년 1분기 이후 LCD 패널 가격 안정화 전망
	96.3%	2019F	7.3	0.61	4,023	8.7	2018년 하반기 애플 아이폰용 OLED패널 성공적 양산과 수익성 개선 중요
삼성전자 (005930)	2,805,000	2017F	9.3	1.84	302,918	20.7	2018년 메모리 업황 둔화 예상되나 3D NAND는 원가 절감으로 마진 하락폭 크지 않아
	3,260,000	2018F	8.6	1.51	327,523	19.4	아이폰용 플렉서블 OLED패널 공급 증가와 수출 안정, 2018년 DP 영업이익 43% 증가
	16.2%	2019F	8.1	1.35	347,138	17.7	대대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 2018~2020년 배당총액 9.6조원
SK텔레콤 (017670)	256,000	2017F	6.7	1.03	38,390	16.1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346,000	2018F	5.9	0.93	43,349	16.3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35.2%	2019F	6.3	0.86	40,730	13.8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메리트
한국전력 (015760)	38,250	2017F	7.4	0.33	5,157	4.5	추가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54,000	2018F	6.0	0.32	6,411	5.5	2022년까지 발전믹스 향상
	41.2%	2019F	5.5	0.31	6,925	5.7	전기요금제도 개편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닥 연중 최고치 행진

- 뉴욕증시는 세계개편안 단행 지연 우려가 지속되며 혼조세로 마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국가지방단체를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반전 후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인 끝에 2,530P선을 위협하는 하락세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에 힘입어 3% 가까운 이상 강세 속 740P선 회복에 성공하며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본 자회사의 도쿄 증시 상장 소식에 하나투어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3분기 실적 호조 효과가 지속되며 셀트리온이 급등세를, 퍼스트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의 미국 판매 허가 취득을 위한 미 FDA 실사 기대감에 셀트리온제약이 초강세를,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셀트리온 3사가 이들 연속 동반 급등하며 코스닥 시장 강세를 주도.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를 맞아 마스크팩 제조업체인 제이준코스메틱이 하루 156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특수를 누렸다는 소식에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간 관계 복원 기대감에 엔터주들의 강세도 돋보임. 또한, 현대, 기아차의 중국내 시장 판매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운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 관련 ETF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크루셀텍이 22% 이상 급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3분기 실적 부진에 한섬이 8% 이상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하나투어(039130) ▶108,500 (+3.33%)	자회사 도쿄 증시 상장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달 일본 자회사인 하나투어재팬이 도쿄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상장 이후 하나투어의 하나투어재팬 지분율은 기존 70.0%에서 53.7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호텔과 면세점, 관광버스 등의 추가 투자를 통해 전체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화장품주	광군제 특수 효과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회복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맞아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강세 - YG PLUS(037270, +6.97%), 코리아나(027050, +6.15%), 연우(115960, +4.22%), 씨큐브(101240, +3.68%), 네이처셀(007390, +3.01%), 아모레G(002790, +2.98%) 등 강세
자동차부품주	현대/기아차의 중국판매실적 회복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며 현대,기아차의 현지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고전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3개월간 판매량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어 판매 회복 기대감에 강세 - 현대차(005380, +3.88%), 기아차(000270, +3.02%), 현대위아(011210, +6.02%), 평화정공(043370, +5.70%), 오스텀(031510, +4.30%), 현대모비스(012330, +1.68%)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SK바이오랜드(052260) ▶21,2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실적 호조 및 내년 연 5,000만장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마스크팩 공장 가동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제이콘텐트리(036420) ▶4,890 (+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범죄도시' 배급 수익과 VOD 성수기 효과 등으로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및 스튜디오드래곤의 상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다나와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다나와 (119860)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중심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순현금 보유로 주가 하방경직성 확보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6. 12A	64	9	9	1,385	5.1
2017. 12F	85	13	12	951	11.4

- 편입 제외 종목: 아이콘트롤스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15.9%)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4,550 (+12.4)	12,950 (11/2)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2,750 (+5.4)	12,100 (11/2)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한솔케미칼 (014680)	71,500 (-0.4)	71,800 (9/28)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급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27,550 (-6.9)	29,600 (9/28)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신성델타테크 (065350)	4,500 (+5.8)	4,255 (8/24)	- 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배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크린앤사이언스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6. 12A	60	4	4	576	10.2
	2017. 12F	75	8	6	1,030	12.1

- 편입 제외 종목: 풍산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14.5%)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송원산업 (004430)	22,650 (+14.1)	19,850 (10/18)	739	70	44	1,847	12.3
			-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윤활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				
이엠텍 (091120)	15,200 (+7.8)	14,100 (7/20)	256	21	15	1,060	14.3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3,995 (-5.3)	4,220 (7/5)	125	20	15	428	9.3
			-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281,500 (+0.5)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1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오텍 (067170)	10,400 (-8.4)	11,350 (4/6)	828	37	17	1,288	8.1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음식료: 17/18년 재고율 상승 → 곡물가격 보합, 업종지수 상승 예상

■ 2017/18년 세계 재고율 전망치: 소맥 하락, 옥수수과 대두는 상승

미국 농무성(USDA)이 10일(현지 시간 9일)에 11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이하 WASDE)를 발표했다. 2017/18년 주요 곡물의 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소맥, 대두박은 하락, 옥수수, 대두는 상승했다. 17/18년 재고율은 소맥 36.2%(전월 36.3%), 옥수수 19.1%(18.9%), 대두 28.4%(27.9%), 대두박은 5.1%(5.3%)를 기록했다. 16/17년 재고율은 소맥 34.6%(전월 34.7%), 옥수수 21.3%(21.4%), 대두 29.2%(28.7%), 대두박 5.5%(5.8%)를 기록했다.

■ 미국과 브라질의 대대적인 생산량 증가가 소비 증가세를 상쇄

17/18년 소맥: 17/18년 예상 세계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100)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초 재고 전망이 전월대비 1.0백만톤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17/18년 세계 생산 전망은 러시아가 1.0백만톤, EU가 0.5백만톤 증가해 파키스탄의 0.5백만톤 감소를 상쇄했다. 세계 소비는 0.5백만톤 소폭 증가했다.

17/18년 옥수수: 17/18년 세계 기말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생산 전망이 전월대비 5.1백만톤이나 크게 상향됐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의 생산 전망이 하향됐지만 미국의 생산 전망이 이를 상쇄하도록 크게 상향됐다. 작황 개선이 이유다. 소비는 생산 증가에 맞춰 사료용 등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량은 생산량 증가보다 작은 1.8백만톤에 그쳤다.

17/18년 대두: 17/18년 예상 세계 기말재고율은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초 재고가 늘고 생산 전망이 소비 전망대비 더 크게 상향된 탓이다. 특히 브라질이 파라나와 리오그란데도술의 경작 면적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전월 전망대비 1백만톤 증가한 108백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초 재고 전망은 전년도의 소비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역시 1.5백만톤 늘었다. 세계 소비는 0.6백만톤 증가하는데 그쳤다.

■ 원화환산곡물가격 안정이 업종지수 상승 버팀목

전월에 곡물가격이 보합권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 달간 곡물가격은 소맥 -1.6%, 옥수수 -2.3%, 대두 +0.9%, 원당 +12.4%의 등락률을 보였다. 원당은 헤알화 강세와 환매수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ONI는 지난달 -0.15도에서 -0.42도로 움직였다. 북반구의 경우 가을과 겨울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휴경기에 접어든 지역이 많아 이러한 기상 이변이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분간 곡물가격 보합 전망을 유지한다. 원화강세도 감안하면 원화환산곡물가격의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음식료업체의 원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2년간의 주가 하락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증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달 Top picks는 실적이 개선됨과 동시에 투자 불확실성이 줄어든 CJ제일제당, 저평가 매력이 강한 매일유업, 해외 자회사 지분의 재보유 가능성이 높고 주가지표가 낮은 롯데제과, 경쟁사의 가격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계속 줄어들 농심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반도체: PC디램 수요둔화 본격화될 듯

■ 9월 미국 PC 및 주변기기 도매재고 금액 및 증가율 하락

9월 미국 PC 및 주변기기 도매재고 금액증가율이 8%로 8월 증가율 12.8%대비 크게 낮아졌다. 도매재고금액도 전월 대비 2% 감소해 재고금액 증가추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이다. 과거 이 지표의 추세와 PC디램의 출하량 증가율 추세가 거의 같이 움직였고 PC업체들의 디램재고도 과거 고점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보여 PC업체들의 향후 디램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다. PC가 디램의 주요 application 중 수요 비중이 10% 중반으로 가장 낮지만 PC디램 수요가 산업 사이클의 지표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디램사이클의 둔화가 예상된다.

■ 2018년 서버디램 수요는 견조하겠지만 PC디램수요는 역성장 전망

2017년 디램수요 증가율은 24%로 application 전반의 수요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수요가 좋은 서버디램 수요는 2017년 41% 증가해 2016년 34% 대비 높은 수요증가율이 예상된다. PC디램 수요도 2016년 2%에서 2017년 21%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2018년 디램수요는 application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서버디램의 수요가 33% 증가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PC디램의 경우 PC업체들의 재고조정으로 5%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 엔비디아 FY3Q18 실적 시장 상회해 GPU수요 강세 확인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의 FY3Q18(2017년 8월~10월)의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매출액 26.4억달러, 순이익 8.4억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2%, 23% 상회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성장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센터부문의 매출액이 5.0억달러로 전년대비 109%, 전분기대비 20% 매출액이 증가해 여전히 성장을 주도했다. 데이터센터부문 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밍부문 매출액도 25% 증가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향 GPU의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센터의 메인 컴퓨팅 능력은 CPU와 서버디램으로 구성되고 있어 데이터센터향 GPU의 디램수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 2018년 메모리수급 약화 전망

2018년 메모리수급은 전반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디램의 경우 수요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공급업체들의 설비투자는 증가해 공급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어 현재의 tight한 수급이 약해질 전망이다. 낸드의 경우도 공급업체들의 3D낸드 양산이 시작돼 공급증가율이 높아지지만 낸드가격 상승으로 모바일 및 client SSD의 채용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삼성전자를 반도체업종 top pick으로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은행: 카카오뱅크 업데이트 - 대출 3.4조원 달성의 의미

■ 카카오뱅크 여신 및 수신 각각 3.4조원, 4.0조원 달성

카카오뱅크의 여신 및 수신 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3.4조원, 4.0조원을 돌파했다. 출시 97일차만에 달성한 성과다. 저번 인터넷은행 보고서(8/23, '인터넷은행 A to Z')에서 올해 연말 카카오뱅크 수신액을 3.8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수신 증가액은 개점효과가 있던 8월 1.6조원을 정점으로 9월 1.2조원, 10월 0.9조원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를 반영해 카카오뱅크의 내년 월평균 수신 증가액은 3,800억원으로 전망한다. 또한 내년 말 대출채권 잔액은 7.8조원으로 전망한다. 흑자전환을 위한 평잔 기준 대출액을 6.1조원으로 보는데, 10월에 대출이 3.4조원을 돌파하면서 흑자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는 1.4조원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1.4조원으로 제시한다. 3단계 잔여이익모형을 사용했고 현재 자기자본비용은 7%, 영속 자기자본비용은 9%로 가정했다. 카카오뱅크는 10년차인 2026년에는 총자산 40조원, 대출 33조원, 자기자본 2.8조원의 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2026년 ROE 및 ROA, 이익경비율은 각각 13.4%, 0.94%, 30%다.

■ NIM은 1.65%

우선 카카오뱅크 2017년 NIM을 1.65%로 추정한다. 케이뱅크의 2분기 예대금리차 및 NIM은 각각 1.51%, 1.87%였다. 케이뱅크보다 NIM이 소폭 낮은 이유는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 비중이 전체 대출의 49%(8월 27일 기준)에 이르고 여기에 기표되지 않은 미사용한도를 고려하면 유동성 대비로 인해 유가증권 수익률이 케이뱅크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 대손율은 0.41%

카카오뱅크의 2017년 대손율은 0.41%로 전망한다(표 1). 케이뱅크의 2분기 대손상각비는 25억원으로 총여신 6,003억원 대비 0.42%였다. 케이뱅크의 2분기 대손율이 연율화로는 1.68%가 나오면서 바젤 I 아래서의 보수적 충당금 적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는 대출의 기초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증가율이 커진 초기 왜곡현상 때문이다. 결국은 부실채권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 이상 케이뱅크의 2017년 연간 대손율도 0.41% 수준일 것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크게 보면 케이뱅크의 대손율과 비슷할 것이다. 둘 다 비슷한 가계차주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PD/LGD 방법을 사용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 향후 자본조달 여력은 충분

최근의 급격한 성장과 은행법 개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 여력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차원에서 자회사 증자배당을 통해 적정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이 8,000억원이 됐는데, 성장 및 이익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1~2년 내에 5,0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 카카오뱅크가 급격히 성장한 배경

카카오뱅크는 8~10월동안 누적으로 3.1조원을 신규 대출했다. 동기간 은행 업종 기타대출 증가액의 35%에 달한다. 이렇게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카카오뱅크 서비스의 편의성과 초기 가격 혜택과 더불어 우호적인 자금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머징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등 무위험자산 공급이 세계 GDP 증가액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중이다. 세계 GDP가 증가함에 따라 무위험자산 수요도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무위험자산 과소공급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겹치면서 소위 위험자산으로의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졌고, 차례로 전세계적인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특수요인으로는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 향후에는 적정 성장이 중요

물론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스템 거시건전성을 고려한 각종 감독당국의 개입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율은 장기적으로는 업종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현재 전년동기대비 예금은행의 총예금 증가율은 5.1%, Lf 증가율은 6.0%다. 또한 정부에서 추계치로 제시한 향후 5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7~8%다. 다만 업종 평균 대출 증가율로 수렴하기 전에 초기 10년간의 빠른 대출 증가를 가정했다. 따라서 초기의 빠른 자산 성장 속도를 감안해 카카오뱅크의 2026년 기업가치는 4.7조원으로,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지분가치는 1.4조원으로 전망한다.

■ 은행 업종 비중확대 유지

은행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카카오뱅크의 기존 상장 은행들의 수익성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나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와 기존 은행들이 여수신 시장에서 가격경쟁 촉발로 인한 수익성의 큰 하락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여신에서는 비록 기존 은행들의 고객군과 겹치지만, 초과 대출수요를 카카오뱅크가 흡수하는 그림이 될 것이고, 수신에서는 기존 은행보다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 중요한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중

결국 인터넷은행이 촉발한 채널과 서비스 혁신의 파급효과보다는 정책당국의 금융규제의 큰 틀인 '생산적 금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 바젤 III 규제 아래서의 글로벌 금융기관 규제의 정합성, 국내 은행들의 급격한 수익성 하락 등의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상적인 정책 목표점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금융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건설: IFRS 15 도입의 영향

■ IFRS 15 도입

2018년, IFRS 15가 전면 도입된다. 도입까지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건설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준서의 변경이 기업 실질의 변경이 아닌, 표현방식의 변경이지만 한동안 기존 방식과의 차이로 혼란이 예상된다. IFRS 15의 핵심은 수익인식 방식이 ‘권리를 가질 금액’의 인식이며 계약 내 여러 구성요소를 포함하면, 각 요소를 분리해 반영하는 것이다.

■ 논란 대상은 자체사업의 인도기준 적용 여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공기가 3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금액이 커, 진행기준 수익인식으로 손익과 재무상태의 변동성을 완화해 왔다. IFRS 15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자체사업이다. 일반 도급사업에서는 대부분 ‘이행한 부분만큼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건설사가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과 같이 진행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청구권은 고객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계약 해지가 가능한 주택사업, 특히 자체사업에서 지급청구권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체사업에 인도기준 적용 시 입주 전까지 손익은 저조하고 부채(선수금)과 자산(재고자산)은 늘어나 부채비율은 최대 2.8배 이상 늘어나는 변동성이 예상된다.

■ 현행 회계기준과 변화가 작은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형사 중 자체사업의 절대액과 매출 비중은 대우건설과 현대산업이 높고 대림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사업 비중이 크다고 표현방식의 변경뿐인 IFRS 15 제도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시행사 개념의 자회사(SPC)설립 등으로 회계 변동성의 완충효과를 피할 것이다.

그 외 1) 플랜트 사업에서 건설사가 제작에 개입하지 않는 기자재 조달은 이익률을 0로 산정 뒤, 분리 인식해 기자재 조달 기간에 나타나는 매출과 이익의 증대 현상이 줄어들고, 2) 수주 추진비(선급공사 원가)의 자산화가 불가해진다는 점이 주요 변화다. 2)는 주택사업에서 판관비는 증가하겠으나 최종 프로젝트 수익성은 현행 대비 높아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양호할수록 IFRS 15에서 충격이 최소화된다. 특히 자체사업 비중이 낮고 주택사업에서 마케팅비 발생요인이 적은 기업이 IFRS 15에서 큰 변화가 없다. 주택사업이 없어 관련 없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대형사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인터파크홀딩스(035080)

중립(유지)

종가(11/10): 4,120원

부진의 연속

■ What's new : 영업이익 71% 감소

3분기 연결 매출액은 8,8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3억원으로 71.4% 줄었다. 전일 17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한 주요 연결자회사 인터파크와 아이마켓코리아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던 영향으로 우리 추정치를 하회했다. 시장 컨센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외부문에서 자회사 '라이브톤' 처분이익이 발생해 기타 영업외수익은 6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4% 늘었다.

■ Positives : 사업 구조의 재편 마무리 단계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사업 정리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 영화 음향 제작 및 음향 설계 등을 하는 '라이브톤(기존 지분율 62.6%)' 의 지분을 텍스터스튜디오에 매각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공시를 통해 중국 내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던 '북경디초콜릿(기존 지분율 100%)' 의 해산에 따른 자회사 탈퇴를 밝혔다. 그동안 비핵심 자회사를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Negatives : 수익성 악화

영업이익률은 0.4%로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아이마켓코리아의 연결 매출액은 7,692억원, 영업이익은 633억원으로 각각 4.8%, 45.3% 감소했다. 작년 말 삼성그룹과의 MRO 보장 물량 계약 기간이 종료돼 삼성향 매출이 줄어 외형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원가 절감 요구에 따라 일부 판매 품목의 마크업이 하향 조정돼 감익을 피하지 못했다. 아이마켓코리아의 자회사인 안연케어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8.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7% 감소해 영업이익률이 8.2%(-1.5%p YoY)로 하락했는데, 세브란스의 매입가 인하 요청으로 인해 전년 수준(9.7%) 대비 수익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연결 영업이익이 60.1% 감소해 21억원에 그쳤는데, ENT부문이 적자 전환했고, 쇼핑과 도서 부문의 손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 결론 : 부진한 흐름 지속, 중립 의견 유지

인터파크홀딩스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인터파크홀딩스의 연결대상 자회사는 3분기말 기준 아이마켓코리아(지분율 40%)와 인터파크(68%), 그리고 각각에 딸린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분기까지 연결대상이었던 북경디초콜릿과 라이브톤이 정리돼 두 주요 상장사의 실적이 동사의 기업 가치로 직결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 강화가 확인되어야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27	885	(4.6)	NA	(1.2)	(3.2)	3,847	NA
영업이익	11	3	(70.8)	NA	(39.9)	(71.4)	46	NA
영업이익률	1.2	0.4	(0.9)	NA	(0.2)	(0.9)	1.2	NA
세전이익	10	4	(63.7)	NA	(5.0)	(73.9)	46	NA
순이익	7	(0)	(102.1)	NA	(적지)	(적전)	7	NA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섬(020000)

매수(유지)
목표가: 41,000원(하향)
종가(11/10): 32,650원

성장의 덩

■ What's new : 비수기에 일회성 비용 겹치면서 크게 부진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92% 급증한 2,820억원을 기록해 예상을 6%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27% 감소한 96억원 (영업이익률 3.4%)에 그쳐 예상을 40% 하회했다. 부문별 실적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SK패션 부문(현대지엔에프, 한섬글로벌)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섬 본업 매출액은 약 10%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6%대에 그치며 작년보다 수익성이 하락했다. 1) 한섬글로벌 중국 사업 축소 과정에서 재고 처리 손실, 2) 비주력 브랜드인 '모텐' 철수 관련 재고 및 제반 비용, 3) 한섬과 SK 패션 모두 '페밀리세일' 등 대규모 할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원가율이 상승, 상기 3가지가 실적 부진의 주요인이다.

■ Positives : 성수기 진입, 중장기적으로 손익 개선 요인 상존

3분기는 비수기에 일회성 비용들이 발생했다. 4분기는 최대 성수기에 전년 동기 정국 불안으로 인한 낮은 소비 기저와 일회성 재고 손실을 감안할 때 3분기와 같은 실적 괴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사업에서의 일회성 비용 요인은 소멸될 것이다. 중국 부문의 금년 순손실 규모는 약 70억 내외로 추정되며(상반기 30억원) 중국 사업은 직영 체제에서 대리상 체제로 전환, 고정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2018년 손익 개선 요인이 될 것이다. '모텐' 브랜드 철수도 일회성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섬 본업은 온라인 사업 확대로 효율성 개선, 3~4년차 브랜드 손익 개선 등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 Negatives : 소비보다 재고 관리와 확장 전략이 변수, 높아지는 불확실성

상반기 부과세 환급 79억원을 제거 시 한섬 본업이 부진하다. 소비보다는 재고와 확장 전략이 변수다. 동사는 상반기 말 LF와 신세계인터내셔널과 비교 시 절대 재고 금액은 가장 높고 재고자산회전율은 가장 낮다. 패션회사들의 재고에 대한 확실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절대적으로 높은 재고 수준은 원가율 상승, 브랜드 구조조정 등의 가능성을 나타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3분기 실적 부진의 대부분은 재고 관련 요인이다. 공격적인 신규 브랜드 출시, 수입 사업 확장, SK네트웍스 패션 부문 인수 등 다양한 확장 전략은 부실 브랜드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수입, 라이선스 브랜드 일부도 향후 종료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손익 개선 요인이나 단기 불확실성 요인이다.

■ 결론 : 목표주가 41,000원으로 하향, 2018년 PBR 1배 수준

2018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 대비 12% 하회했다. 실적 하향에 따라 목표주가는 기존 46,000원에서 41,000원으로 하향한다(2018F PER 13배, PBR 1배).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 SK패션 부문과 한섬 본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여지가 높으며 2018F PER 10배, PBR 0.7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67	282	5.6	276	(6.1)	91.9	1,245	1,262
영업이익	16	10	(40.4)	16	(17.9)	(27.4)	82	92
영업이익률(%)	6.0	3.4	(2.6)	5.7	-0.5	-5.6	6.6	7.3
세전이익	17	10	(39.5)	16	(23.4)	(30.7)	87	97
순이익	13	7	(46.9)	12	(30.1)	(38.9)	65	7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화생명(088350)

매수(유지)
목표가: 9,500원(유지)
종가(11/10): 7,450원

2018년 환골탈태가 기대된다

■ What's new : 기대치 하회했지만 내용으로는 우수한 3Q

한화생명은 3Q17 순이익 1,303억원(-13.4% YoY, -41.3% QoQ)를 시현했다. 우리의 추정치를 하회했지만, 3Q 내용은 향후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실적이었다. 3Q 위험손해율은 81.5%로 전년 대비 5.8%p 상승, 전분기 대비 8.2%p 상승했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방학철 병원 진단 증가, 영업일수 증가에 따른 클레임 증가가 배경이다. 10월 위험손해율은 63.2%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기에 4Q 위험손해율은 큰 폭 개선이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연간 기준 위험손해율을 2017년은 77% 하회, 2018년은 75%를 하회하는 손해율을 전망했다(3Q 누적 위험손해율 81.5%).

■ Positives : 2017년을 마지막으로 변액보증업선 준비금 부담 해소

한화생명은 실적 발표회를 통해 1Q 490억원, 2Q 1,070억원의 변액보증준비금이 환입되었음을 밝혔다. 3분기는 환입/적립이 없었고, 4Q에 금감원 시나리오와 계리적 가정에 따라 보증금 적립을 가정해도 손익 영향이 +/- 수십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준비금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환입 효과 지속에 따른 실적 추정 상향 여지가 상존한다. 우리는 상기 요인을 반영해서 2017년 순이익을 전년 대비 98.0% 증가한 6,240억원, 2018년 순이익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6,889억원을 전망한다.

■ Negatives : 예금보험공사, 2018년 한화생명 지분 6.2% 처분 계획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식과 함께 한화생명 6.2%, 서울보증보험 5% 등을 매각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8월 14일 예보는 3개월 보호예수기간을 걸고 한화생명 지분 5%를 매각했다. 현재 보호예수기간 종료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는 추가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 결론 : 금리, 위험손해율, 자본적정성 부담 완화로 2018년 환골탈태 전망

오버행 이슈를 제외하고는 2018년 한화생명은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인다.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역마진 스프레드 축소, 위험손해율 하락에 따른 사차익 개선, 자산 부채드레이션 확대로 자본적정성 부담 완화 등 2018년은 한화생명의 펀더멘털 개선 방향성이 뚜렷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점은 부담이나, 연말까지는 보유 물량 매각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보험영업수익	2,921	2,393	(18.1)	2,410	(0.3)	(4.0)	10,445	9,986
보험손익	332	53	(84.1)	316	(77.2)	(85.1)	600	1,080
투자손익	766	845	10.3	813	2.7	13.2	3,363	3,286
당기순이익	425	130	(69.4)	141	(41.3)	(13.4)	624	63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매수(유지)
목표가: 84,000원(유지)
종가(11/10): 68,600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 What's new : 기존 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부진한 실적

NHN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97억원(+5.9% YoY, -2.3% QoQ)과 55억원(+142.3% YoY, -44.3% QoQ)을 기록하며 우리 추정치를 하회했다. 웹보드 게임의 비수기 효과와 주요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 감소로 게임 부문 매출액은 1,123억원(-1.6% YoY, -8.5% QoQ)에 그쳤다. 기타 부문 매출액은 커머스 사업의 부진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매출 확대와 페이코 거래 규모의 급증이 이를 상쇄하며 1,074억원(+15.0% YoY, +5.2% QoQ)으로 증가했다. 마케팅 비용은 페이코 가맹점 확대와 코미코 마케팅 집행 확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 마케팅 축소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207억원을 기록했다.

■ Positives : 페이코 거래액의 폭발적인 증가

페이코의 3분기 거래액은 전년대비 200% 증가한 8,000억원을 기록했다. 11번가와 구글플레이 등 유명 온라인 가맹점을 확보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 부문 내 기타 매출액 또한 전분기 대비 41.9% 증가한 171억원에 달했으며 동일 사업 부문 내 페이코 거래액과 관련 광고 매출액 비중은 60% 이상으로 상승했다. 페이코에는 월 20-30억원의 비용만이 집행되고 있어 빠른 거래액의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기여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제가 수반되는 여행과 맛집 등 특화된 서비스를 페이코에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화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 Negatives : 게임 부문의 부진 지속

비수기 효과에 따른 웹보드 매출 감소와 온라인 게임 부진 지속으로 PC 온라인 게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0% 감소한 485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 또한 주요 게임의 부진한 성과로 638억원(-13.6% QoQ)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웹보드 규제 완화와 '크리티컬 오피스' 등 5종의 신규 게임 출시 등을 통한 반등이 기대된다.

■ 결론 : 매수의견 및 목표주가 84,000원 유지. 페이코 관련 매출 증가 기대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수의견 및 목표주가 84,000원을 유지한다. 성수기 효과와 2018년 웹보드 규제 완화를 고려할 시 3분기가 웹보드 사업의 최저점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서구권에서 2,5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지역한 '크리티컬 오피스'의 출시도 2018년 2분기로 예정되어 있어 모바일 게임 사업의 반등 시기도 임박하고 있다. 페이코 거래액의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화 모델의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 또한 향후 기업 가치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28	220	(4.2)	229	(2.3)	5.9	916	933
영업이익	11	6	(51.3)	12	(44.3)	141.3	38	48
영업이익률	4.9	2.5	(2.4)	5.2	(1.9)	1.4	4.2	5.2
세전이익	19	14	(26.9)	19	(25.8)	108.4	80	85
순이익	15	1	(91.1)	15	(77.5)	(11.7)	37	6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필어비스(263750)

매수(유지)

목표가: 210,000원(유지)

종가(11/10): 149,700원

마음 편히 모바일 출시를 기다리자

■ What's new : 기대치를 하회한 3분기 실적

필어비스의 3분기 실적은 우리 추정치를 하회했다. 영업수익은 275.6억원(+117.6% YoY, +16.6% QoQ)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한국과 북미/유럽 등 1년 이상 서비스 지역의 성과가 다소 부진했으며 대만과 북미/유럽 스팀 플랫폼 초기 효과 소멸로 신규 지역 매출액이 감소했다. 1년 이상 서비스 지역과 1년 미만 서비스 지역의 매출액은 각각 136.2억원(+7.5% YoY, +15.7% QoQ)과 139.3억원(-17.4% QoQ)이다. 영업이익은 150.7억원(+78.0% YoY, -32.1% QoQ)을 기록했다. 신규 지역 출시 및 플랫폼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는 전분기 대비 26.3% 증가했으며 4분기 동남아 및 중동 지역 출시를 위한 마케팅 비용 반영으로 광고 선전비도 또한 전분기 대비 59.1% 늘었다.

■ Positives : 플랫폼 확장 시기 임박과 주요 지역의 매출 성장

‘검은사막 M’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됐다. 필어비스는 실적 발표 직후 추가 티저 영상을 공개했으며 PC 버전과 같이 기존 모바일 게임들과 차별화된 개발력을 증명했다. 또한 오는 23일 미디어 쇼케이스와 더불어 사전예약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2018년초 1분기 출시에 대한 가시성이 개선됐다. 출시 시점으로 예상되는 1월의 경우 ‘테라 M’ 외에는 IP 기반의 대형 신작이 없기 때문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 북미 등 기존 서비스 지역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해 신규 플랫폼 진출 이후에도 PC 사업 부분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 비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 감소

3분기 매출액이 기대치를 큰 폭 하회했다. 하지만 3분기는 매출과 연동되는 이벤트들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성수기인 4분기 진입 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스팀 및 대만 매출 감소 또한 출시 초기 패키지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출시 효과 소멸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콘텐츠 및 아이템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 매출액의 89%까지 매출 수준을 회복했다.

■ 결론 : 매수 의견 및 목표주가 21만원 유지. 비수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기우

필어비스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1만원(18F EPS에 target PER 13.9배 적용)을 유지한다. 비수기 진입으로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향후 핵심 성장축인 플랫폼 확장에 대한 가시성이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4분기에는 동남아 지역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성수기 진입으로 인한 기존 지역들의 매출 반등도 기대된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2	28	(13.3)	31	(16.6)	117.6	143	NM
영업이익	21	15	(27.8)	20	(32.1)	78.0	87	NM
영업이익률	65.7	54.7	(11.0)	63.7	54.0	(12.2)	60.9	NM
세전이익	18	16	(11.0)	19	(30.3)	149.1	87	NM
순이익	15	13	(11.6)	16	(31.5)	110.2	73	NM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545.44	2,552.40	2,550.57	2,542.95	2,530.35	
	등락폭	-3.97	6.96	-1.83	-7.62	-12.6	
	등락종목	상승(상한)	394(0)	409(1)	474(2)	409(2)	375(2)
		하락(하한)	392(0)	374(0)	322(0)	385(0)	424(0)
	ADR	106.91	104.29	104.68	108.32	107.88	
	이격도	10 일	100.81	100.84	100.49	100.01	99.40
		20 일	101.72	101.81	101.58	101.14	100.54
	투자심리	60	6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254	277	294	292	265
	거래대금	(십억 원)	5,666	5,717	6,932	5,518	6,019
코스닥	코스닥지수	701.14	709.11	709.94	720.79	741.38	
	등락폭	-2.65	7.97	0.83	10.85	20.59	
	등락종목	상승(상한)	576(2)	578(2)	649(2)	701(0)	731(1)
		하락(하한)	552(0)	567(0)	477(0)	441(0)	410(0)
	ADR	107.44	102.68	104.48	113.03	121.03	
	이격도	10 일	101.02	101.88	101.57	102.67	104.83
		20 일	102.85	103.67	103.46	104.60	106.95
	투자심리	60	60	70	70	80	
	거래량	(백만주)	650	812	615	600	678
	거래대금	(십억원)	5,474	5,787	4,447	4,452	5,74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135.1	1,551.2	1,249.8	435.3	76.9	145.4	72.0	13.0	507.1	90.0
	매도	2,877.5	1,615.6	1,476.9	263.1	120.5	232.4	233.0	33.4	594.5	56.1
	순매수	257.6	-64.4	-227.1	172.3	-43.6	-87.0	-160.9	-20.4	-87.4	33.9
	11 월 누계	534.2	278.1	-942.2	969.0	-270.8	-148.8	-220.9	-106.9	-1,163.8	130.0
	17 년 누계	-4,857.8	8,323.3	-7,601.9	7,030.3	-2,098.4	-3,806.4	-345.9	-847.2	-7,534.5	4,136.5
코스닥	매수	4,682.3	500.7	552.0	150.5	46.8	100.2	87.4	10.9	156.3	36.3
	매도	5,088.5	385.6	253.3	71.1	9.4	38.7	28.7	2.1	103.2	43.9
	순매수	-406.2	115.1	298.8	79.4	37.3	61.5	58.7	8.8	53.1	-7.6
	11 월 누계	-123.9	-235.8	490.2	283.7	57.7	78.6	44.9	20.2	5.1	-130.4
	17 년 누계	3,083.6	1,979.7	-3,598.8	-556.5	-334.7	-911.4	-576.9	-81.4	-1,138.1	-1,464.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31,986	전기전자	-35,949	서비스업	15,061	화학	-39,984
증권	5,157	기타금융업	-22,387	의약품	10,181	전기전자	-22,320
의약품	3,779	화학	-18,299	운수장비	9,351	기타금융업	-15,356
KODEX 레버리지	10,166	삼성전자	-19,240	현대차	16,857	LG화학	-27,417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930	LG이노텍	-6,055	현대모비스	12,909	현대중공업	-12,057
키움증권	3,590	KB금융	-5,945	아모레퍼시픽	10,155	삼성물산	-11,824
KODEX 200	3,566	LG화학	-5,164	LG생활건강	9,752	롯데케미칼	-11,697
CJ	2,719	롯데케미칼	-4,850	이마트	9,683	삼성전자	-10,28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407	미분류	-25,558	의약품	4,911	전기전자	-20,408
기계	664	전기전자	-17,519	증권	4,373	화학	-15,661
전기가스	500	운수장비	-1,426	운수창고	1,376	기타금융업	-7,364
KODEX 레버리지	22,945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8,295	한미약품	3,845	삼성전자	-13,671
TIGER 중국소비테마	5,684	TIGER 헬스케어	-12,250	메리츠증권	2,405	롯데케미칼	-6,734
KODEX 코스닥 150	2,240	SK하이닉스	-11,045	KODEX 고배당	1,989	TIGER 코스닥150	-6,373
TIGER 코스닥150	1,928	KODEX 인버스	-8,486	현대글로벌비스	1,973	LG화학	-5,883
TRUE 코스피 양매도 ETN	1,853	삼성전자	-6,619	넷마블게임즈	1,925	현대미포조선	-4,62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25,417	화학	-84,676	서비스업	24,805	기계	-24,935
의약품	21,419	전기전자	-68,115	의약품	22,579	건설업	-18,201
서비스업	5,193	기타금융업	-50,043	전기전자	18,471	운수창고	-12,373
현대모비스	19,281	LG화학	-40,420	삼성전자	43,081	LIG넥스원	-22,427
현대차	19,076	롯데케미칼	-31,017	SK하이닉스	23,599	NAVER	-20,659
한미약품	16,862	삼성전자	-29,422	엔씨소프트	17,163	한국항공우주	-19,953
CJ	14,337	현대미포조선	-24,801	LG화학	15,987	LG디스플레이	-19,064
이마트	14,329	LG이노텍	-22,621	덴티움	13,436	아모레퍼시픽	-16,682
아모레퍼시픽	13,308	현대로보틱스	-20,182	현대중공업	10,860	LG이노텍	-16,061
기아차	8,493	삼성SDI	-17,462	한미약품	9,737	대우건설	-11,505
카카오	7,324	현대중공업	-16,933	현대위아	9,329	삼성전기	-9,665
키움증권	7,216	SK이노베이션	-16,916	CJ제일제당	9,058	이마트	-9,432
KODEX 200선물인버스2X	6,738	삼성물산	-16,120	카카오	8,104	현대모비스	-9,085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22,279	디지털컨텐츠	-2,644	도매	13,735	IT부품	-5,097
반도체	8,039	오락,문화	-1,765	계약	13,111	반도체	-3,757
도매	5,355	교육	-181	방송서비스	5,608	환경	-141
셀트리온	12,132	펼어비스	-4,355	셀트리온헬스케어	13,813	SK머티리얼즈	-5,480
셀트리온헬스케어	5,041	AP시스템	-2,508	메디톡스	6,829	인터플렉스	-4,395
CJ E&M	3,886	파라다이스	-2,405	CJ E&M	6,623	ISC	-1,665
메디톡스	3,547	이녹스첨단소재	-1,378	셀트리온	5,692	CJ오쇼핑	-1,045
SK머티리얼즈	2,707	알에스오토메이션	-804	펼어비스	3,667	리노공업	-84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3,024	기계,장비	-258	계약	15,446	미분류	-1,037
디지털컨텐츠	1,398	금융	-195	디지털컨텐츠	4,956	비금속	-777
오락,문화	1,015	화학	-125	방송서비스	4,548	통신서비스	-204
메디톡스	1,476	에스에프에이	-370	셀트리온	12,585	파라다이스	-1,328
펼어비스	1,109	대주전자재료	-253	CJ E&M	3,349	티슈진	-1,037
셀트리온	1,089	바른전자	-170	웹젠	2,578	SK머티리얼즈	-892
셀트리온헬스케어	926	제일홀딩스	-167	펼어비스	2,194	포스코캠텍	-828
에스엠	917	파라다이스	-107	제이콘텐트리	1,573	제일홀딩스	-27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91,214	교육	-322	계약	60,737	출판,매체복제	-6,716
반도체	33,922	농업	-246	연구,개발	38,732	화학	-3,776
연구,개발	26,326	기타서비스	-212	도매	6,998	사업지원	-2,453
셀트리온	53,578	캠트로스	-2,850	셀트리온	47,631	로엔	-6,665
셀트리온헬스케어	24,535	알에스오토메이션	-1,965	신라젠	30,332	포스코캠텍	-3,770
메디톡스	17,933	ISC	-1,367	비에이치	6,030	셀트리온계약	-3,057
CJ E&M	16,083	삼천당계약	-781	셀트리온헬스케어	4,882	원익IPS	-2,893
신라젠	13,501	인터플렉스	-764	휴온스	4,517	오스템임플란트	-2,542
에스에프에이	10,052	우리산업	-718	인바디	3,640	휴젤	-2,525
제이콘텐트리	8,880	리노공업	-701	제이콘텐트리	3,140	에코프로	-2,517
제넥신	8,870	제일홀딩스	-660	케어젠	2,791	GS홈쇼핑	-2,135
휴젤	6,248	SK머티리얼즈	-595	제넥신	2,723	모두투어	-2,056
서울반도체	5,851	티케이케미칼	-557	바이로메드	2,662	주성엔지니어링	-1,968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BS미디어홀딩스	51 일	LG	28 일	선광	35 일	네오팜	29 일
세원정공	29 일	동양고속	25 일	손오공	25 일	동우팜투테이블	17 일
TIGER 원유선물Enhanced(H)	24 일	고려아연	19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22 일	리노공업	17 일
에스엘	21 일	OCI	19 일	태광	21 일	나이스디앤비	16 일
세종공업	20 일	KCC	18 일	신라섬유	21 일	티씨케이	16 일
대한제당	18 일	엔에스쇼핑	17 일	SGA솔루션즈	20 일	휘닉스소재	16 일
KGP	17 일	부산가스	17 일	영우디에스피	20 일	코콤	16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16 일	LG화학	14 일	코디	20 일	성광벤드	1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200	197,420	SK하이닉스	94,029	셀트리온	92,371	신라젠	36,589
TIGER 200	78,129	CJ제일제당	74,022	CJ E&M	46,085	인터플렉스	11,431
카카오	57,249	LG화학	72,626	신라젠	35,427	비에이치	11,263
넷마블게임즈	56,904	LG전자	67,960	엘앤에프	32,646	서울반도체	9,576
KT&G	40,157	삼성중공업	49,762	셀트리온헬스케어	27,179	파라다이스	8,488
대우건설	38,596	현대차	35,286	메디톡스	23,998	에스에프에이	8,150
아모레퍼시픽	38,227	대우건설	34,842	에코프로	19,772	에코프로	7,872
한국타이어	37,509	LG	34,497	제이콘텐트리	18,233	인바디	7,86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21,419	22,579	43,999	제약	91,214	60,737	151,950
서비스업	5,193	24,805	29,998	연구,개발	26,326	38,732	65,058
의료정밀	360	13,023	13,384	반도체	33,922	206	34,127
SK하이닉스	6,619	23,599	30,218	셀트리온	53,578	47,631	101,209
한미약품	16,862	9,737	26,599	신라젠	13,501	30,332	43,833
현대차	19,076	6,547	25,623	셀트리온헬스케어	24,535	4,882	29,416
엔씨소프트	1,183	17,163	18,346	CJ E&M	16,083	2,432	18,515
카카오	7,324	8,104	15,427	제이콘텐트리	8,880	3,140	12,020
현대위아	4,743	9,329	14,073	에스에프에이	10,052	1,880	11,932
덴티움	366	13,436	13,802	제넥신	8,870	2,723	11,594
기아차	8,493	2,284	10,777	서울반도체	5,851	2,634	8,485
OCI	4,614	4,855	9,469	비에이치	2,324	6,030	8,354
넷마블게임즈	3,681	4,993	8,674	인바디	4,008	3,640	7,64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휴스틸	25 일	삼성카드	23 일	모아텍	31 일	레드캡투어	51 일
코리안리	22 일	포스코대우	22 일	흥국	27 일	한국가구	38 일
엔에스쇼핑	19 일	두올	17 일	ISC	17 일	대양전기공업	35 일
롯데케미칼	19 일	화승알앤에이	17 일	퓨처스트림네트웍스	16 일	세진티에스	33 일
무림P&P	18 일	힐라코리아	16 일	청담러닝	16 일	평화정공	30 일
한양증권	18 일	LG유플러스	15 일	팬엔터테인먼트	15 일	오리콤	26 일
부산가스	17 일	아모레퍼시픽	14 일	케이피엠테크	14 일	대성미생물	24 일
LG	17 일	한국제지	13 일	인베니아	13 일	삼릉물산	2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28,845	KODEX 200	-202,549	비디아이	-20,598	셀트리온	-33,107
SK하이닉스	-118,249	엔씨소프트	-102,016	티슈진	-18,948	티슈진	-28,988
LG화학	-83,660	TIGER 200	-87,275	컴투스	-11,944	로엔	-15,957
롯데케미칼	-69,101	신한지주	-65,953	하나머티리얼즈	-5,721	CJ E&M	-11,850
NAVER	-55,203	LIG넥스원	-56,134	제일홀딩스	-5,326	컴투스	-11,566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53,248	아모레퍼시픽	-48,363	야스	-5,323	셀트리온헬스케어	-10,398
현대로보틱스	-52,752	삼성바이오로직스	-44,243	비에이치	-4,889	더블유게임즈	-9,579
KODEX 레버리지	-47,931	NAVER	-38,131	캠트로스	-4,814	GS홈쇼핑	-9,30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84,676	-12,010	-96,686	출판,매체복제	5,269	-6,716	-1,447
전기전자	-68,115	18,471	-49,644	사업지원	1,423	-2,453	-1,030
미분류	-39,200	-8,088	-47,288	기타제조	-19	-364	-384
롯데케미칼	-31,017	-8,968	-39,985	캠트로스	-2,850	-225	-3,075
LG이노텍	-22,621	-16,061	-38,682	SK머티리얼즈	-595	-1,908	-2,503
현대미포조선	-24,801	-8,681	-33,482	알에스오โต메이션	-1,965	-116	-2,081
LIG넥스원	-9,676	-22,427	-32,103	ISC	-1,367	-307	-1,674
삼성전기	-13,324	-9,665	-22,989	상아프론테크	-498	-823	-1,320
한국항공우주	-2,663	-19,953	-22,616	필옵틱스	-256	-1,009	-1,265
KODEX 레버리지	-15,025	-5,769	-20,795	티케이케미칼	-557	-64	-621
S-Oil	-13,938	-4,073	-18,011	APS홀딩스	-135	-450	-585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5,983	-1,590	-17,573	유바이오로직스	-30	-537	-568
SK이노베이션	-16,916	-596	-17,513	바른전자	-167	-398	-56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366	12,296
LG전자	125	11,800
LIG넥스원	153	9,329
삼성바이오로직스	24	9,063
카카오	47	7,152
LG디스플레이	227	6,791
엔씨소프트	16	6,735
현대백화점	75	6,65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53	9,270
신라젠	95	7,171
컴투스	25	3,071
더블유게임즈	56	2,901
바이로메드	20	2,744
로엔	19	2,014
파라다이스	74	1,797
동진세미켐	73	1,5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36	10,817,548
SK하이닉스	37,652	3,087,463
LG디스플레이	50,090	1,512,714
삼성바이오로직스	3,481	1,307,091
카카오	7,409	1,129,899
NAVER	1,318	1,072,522
LG생활건강	874	1,065,826
현대차	6,802	1,050,90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913	4,568,457
신라젠	9,067	685,462
파라다이스	13,236	330,226
로엔	2,989	328,472
바이로메드	1,780	249,242
셀트리온헬스케어	3,048	185,296
코미팜	3,232	123,141
포스코캠텍	3,497	109,11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8,396	증권	-9,597
미분류	5,296	보험업	-6,257
은행	1,223	화학	-6,110
현대상선	7,737	SK증권	-6,279
KODEX 200	2,474	한화손해보험	-3,730
대한전선	2,310	삼성엔지니어링	-3,390
파워 200	2,000	금호타이어	-3,383
서울식품	1,671	한화생명	-2,515
BNK금융지주	1,172	동양	-2,465
우리금융	984	KB금융	-1,975
우리은행	822	한화테크윈	-1,750
파워 코스피100	770	미래산업	-1,320
영진약품	640	한온시스템	-1,166

KOSDAQ			
순 증		순 감	
비금속	869	정보기기	-2,995
음식료,담배	845	IT부품	-2,462
의료,정밀기기	575	오락,문화	-2,003
CMG제약	1,311	이트론	-3,000
하림	749	파라다이스	-1,591
와이지-원	723	지엔코	-1,364
행남생활건강	686	셀트리온	-1,294
케이피엠테크	473	이화전기	-995
HB테크놀러지	445	큐로컴	-963
이지바이오	296	SFA반도체	-756
나노엔텍	294	동원개발	-723
오성엘에스티	283	동진세미켐	-707
에스에이엠티	275	바이로메드	-67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3(월)
외국인	8,323.3	278.1	-21.9	244.4	54.0	-67.0	-188.9	-64.4
기관계	-7,601.9	-942.2	-536.9	-70.7	-70.6	-185.3	16.9	-227.1
(투신)	-3,806.4	-148.8	-63.4	29.9	106.4	-66.1	-46.6	-87.0
(연기금)	2,579.6	-299.6	-239.6	50.5	-32.7	-74.6	-95.3	-87.5
(은행)	-847.2	-106.9	-25.8	-7.9	-8.4	-0.9	11.8	-20.4
(보험)	-2,098.4	-270.8	-140.8	-45.9	2.2	-21.2	-32.3	-43.6
개인	-4,857.8	534.2	597.4	-74.0	61.7	209.0	143.2	257.6
기타	4,136.5	130.0	-38.6	-99.6	-45.1	43.3	28.8	33.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KOSPI	1,961.3	2,026.5	2,552.4	2,549.4	2,545.4	2,552.4	2,550.6	2,543.0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4,575.6	25,080.2	24,510.7	24,244.1	24,575.6	24,415.8
(증감액)	6,853.1	58.8	1,821.2	614.9	-569.5	-266.6	331.5	-159.8
(회전율)	28.8	24.8	46.3	40.0	45.5	47.4	46.3	40.8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350.1	806.7	-620.0	69.3	326.4	-179.4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506.6	4,462.9	4,447.8	4,484.6	4,506.6	4,542.7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666.3	4,577.5	4,623.8	4,646.7	4,666.3	4,690.0
미수금	151.0	125.6	130.6	139.4	112.6	122.7	130.6	107.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3(금)	11/6(월)	11/7(화)	11/8(수)	11/9(목)
전체주식형	72,208	-4,371	-638	240	-57	-95	118	8
(ex.ETF)		-4,972	347	84	-20	47	258	31
국내주식형	53,710	-5,283	-1,110	195	-99	-132	-61	-50
(ex.ETF)		-5,955	-125	39	-62	10	79	-27
해외주식형	18,498	913	472	45	42	37	179	58
(ex.ETF)		983	472	45	42	37	179	58
주식혼합형	8,999	967	-88	-23	-4	2	-8	-7
채권혼합형	19,979	-6,378	-155	-18	-9	-9	-24	-19
채권형	100,764	-2,096	-1,571	-104	-155	-202	4	-746
MMF	121,585	13,602	2,988	1,375	621	1,186	-2	-1,5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3(월)
한국	7,236	252	-18	219	48	-60	-169	-57
대만	7,224	-518	-314	18	-110	-104	-58	-60
인도	7,307	1,505	922	105	920	-103	-	-
인도네시아	-1,870	-600	-129	34	-61	-13	-89	-
태국	-208	-268	-110	8	16	-52	-82	-
남아공	-4,617	125	166	83	34	48	-	-
필리핀	1,094	26	-6	0	3	-5	-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11/7(화)	11/8(수)	11/9(목)	11/10(금)	11/13(월)
회사채 (AA-)	2.14	2.70	2.71	2.71	2.72	2.74
회사채 (BBB-)	8.27	8.94	8.96	8.96	8.97	8.99
국고채 (3년)	1.64	2.13	2.15	2.15	2.16	2.18
국고채 (5년)	1.80	2.36	2.36	2.35	2.35	2.39
국고채 (10년)	2.08	2.54	2.54	2.54	2.56	2.58
미 국채 (10년)	2.56	2.31	2.32	2.34	2.40	-
일 국채 (10년)	0.06	0.03	0.02	0.04	0.04	-
원/달러	1,210.50	1,111.90	1,115.60	1,115.60	1,117.10	1,120.60
원/100엔	1,030.04	973.47	982.73	983.60	985.87	988.96
엔/달러	117.52	114.22	113.52	113.42	113.31	113.31
달러/유로	1.05	1.16	1.16	1.16	1.16	1.16
DDR3 1Gb (1333MHz)	1.15	1.28	1.28	1.28	1.28	-
DDR3 2Gb (1333MHz)	1.50	1.73	1.76	1.76	1.76	-
NAND Flash 16Gb (MLC)	1.87	2.89	2.89	2.89	2.89	-
CRB 지수	193.97	194.54	194.59	194.57	194.35	-
LME 지수	2,663.2	3,244.9	3,249.0	3,227.3	3,266.8	-
BDI	961	1,477	1,486	1,481	1,464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7.20	56.81	57.17	56.74	-
금 (달러/온스)	1,131.35	1,275.60	1,284.00	1,284.80	1,284.3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실적발표> SK텔레콤	韓> 한미 정상회담 실적발표> 한국전력, 넷마블게임즈, 삼성중공업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0%, n/a, -2.6%) 실적발표> 한온시스템, CJ대한통운	韓> 읍선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9, 232, 229) 9월 도매재고 MoM (0.3%, 0.3%, 0.3%) 中> 10월 CPI YoY (1.9%, 1.8%, 1.6%) 10월 PPI YoY (6.9%, 6.6%, 6.9%) 실적발표> 삼성생명, 카카오, 엔씨소프트	美> 1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97.8, 100.9, 100.7) 日> 9월 3차 산업지수 MoM (-0.1%, -0.2%, 0.1%) 실적발표> 한화생명
13	14	15	16	17
日> 10월 PPI YoY (3.4%, 3.1%, 3.0%)	美> 10월 PPI YoY (n/a, 2.5%, 2.6%) 유럽> 11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0.6%) 3분기 GDP YoY (n/a, 2.5%, 2.5%)	韓> 10월 실업률 (n/a, n/a, 3.7%)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0.0%) 10월 CPI YoY (n/a, n/a, 2.2%) 10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0%, 1.6%) 日> 3Q GDP SA QoQ (n/a, 0.3%, 0.6%) 실적발표> SK, 오리온, 농심, 금호타이어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39)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n/a, n/a, 27.9) 유럽> 10월 CPI YoY (n/a, 1.4%, 1.5%)	美> 10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65, 1127)
20	21	22	23	24
美> 10월 선행지수 (n/a, n/a, -0.2%)	美> 10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42, 5.39) 유럽> 11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0.6%) 3분기 GDP YoY (n/a, n/a, 2.5%)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10월 내구재주문 (n/a, 0.7%, 2.0%) 10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0%, 1.6%) 유럽> 11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0) 11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8.5) 日> 9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FOMC 회의록 공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유럽> 10월 CPI YoY (n/a, n/a, 1.5%)	美> 11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4.6)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